Global Maestro News Briefing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American Society of Safety Professionals (ASSP)는 지난 8월 약물의 오남용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약물의 오남용 사례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건설산업 노동인력의 다양화 및 부상의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자체 특성 등의 여러 이유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약물의 불법적인 사용 보다는, 처방을 받은 진통제의 오남용이 어떻게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 한 지에 논점을 맞춰서 한국 건설업 관계자들에게도 시사 한 바가 있습니다.

National Crisis: Opioid Abus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모르핀보다 약 1,000배 강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Dsuvia

오피오이드

오피오이드(Opioid)는 천연 아편류와 합성 아편류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며, 모르핀도 오피오이드의 한 종류이고 진통제 등에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오남용에 의한 사고가 매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5일자 USA Today는 미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모르핀보다 1,000배 강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Dsuvia, 아랫그림 참조)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평균 115 명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오피오이드는 2016년에 42,249 건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모든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66 %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999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은 환자의 21 ~ 29 %가 약물을 오용하고, 8 ~ 12 %는 사용 장애를 일으키며, 처방전을 오용한 환자의 4 ~ 6 %는 헤로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방된 오피오이드의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피오이드 오남용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인력의 구성 및 업무의 특성 상 건설업계는 근로자의 오피오이드 오남용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중서부 경제 정책 연구소(Midwest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의 상해율은 전국 평균보다 77 % 높으며, 건설 노동자의 약 15 %는 약물 남용의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 작업의 육체적 고단함과 노동 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이러한 통계에 기여합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 공중 보건국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발생한 모든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사망사고 피해자의 26%는 건설 및 석유·에너지 추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망자 10 만 명당 150.6 명 꼴로 매사추세츠 근로자 평균치의 6 배입니다.

대게 사람들은 진통효과가 탁월한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면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통증을 관리하여 보다 빨리 일터에 복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적인 오피오이드 처방을 받은 근로자의 노동 복귀 시간은 오피오이드 처방을 받지 않은 근로자보다 약 3 배 길었습니다. ASSP의 Director-at-Large인 Carl Heinlein은 "건설 노동자들이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마약성 진통제 복용을 점점 더 쉽게 여기게 되면 파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보험 회사, 리더십,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거시적인 차원으로 사태의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통증을 견디기 위하여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처방보다 더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통증을 견딜 수 있기에 작업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부상을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안전도 위태해 질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장으로 돌아가면, 최초의 부상이 악화 되거나 다른 부상을 입고 그에 따라 오피오이드 사용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오피오이드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근로자는 동료들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작업장의 산업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작업장 근로자의 부상 치료에 신중하지 않다면 많은 수의 근로자가 약물 남용으로 고통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assp.org/news-and-articles/2018/08/28/national-crisis-opioid-abuse-in-the-construction-industry

건설현장에서 약물 오남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시공사,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험사 및 다른 사람들은 오피오이드 남용을 방지하고 오용하거나 중독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적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적인 관점에서 시공사, 안전 전문가 및 기타 사람들은 작업장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교대 근무 이전에 유연성 운동 및 스트레치 운동과 같은 간단한 조치에서부터 적절한 인력 수준 확보, 안전을 위한 설계 기술(Design for Safety)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기법 활용에 이르기까지 시공사는 작업장 재해와 그에 따른 오피오이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The Association of Union Constructors의 환경 안전 및 보건 담당 수석 이사인 Wayne Creasap은 근로자로부터 오피오이드 관련 작업장 재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오피오이드 사용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reasap은 "근로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와 시공기술에 대한 현장의 피드백을 얻는 것은 시공사가 어떤 장비와 도구를 구매할 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에 대한 정보를 현장 근로자와 공유하는 것은 근로자 작업이 자신의 신체에서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예방하며,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작업장에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보험사와 협업하여 근로자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단 오피오이드를 처방한 뒤 자연적으로 부상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자들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부상의 유형에 따라 무엇이 최선의 행동 방침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덜 강력한 약이 근로자의 통증을 치료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진통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상을 입은 경우 물리 치료가 근로자가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Heinlein은 "우리는 의료 제공자들과 보다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근로자가 하는 일의 유형과 근로자가 어떤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공사는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정말로 준비가 되었을 때만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분 변화, 충동적 행동 및 위험한 행동 등 오피오이드 중독의 경고 신호를 배울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오피오이드를 처방 받은 근로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같은 조치는 의료 전문가에게 환자의 처방 약물 사용 내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통증 관리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약물 남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관련자는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오피오이드를 처방하는 것은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 일 수 있지만 근로자가 완전히 회복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남용이나 중독으로 고생하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직원 간의 열린 의사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피오이드 사용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낙인 때문에,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는 그것을 논의하기를 주저해왔습니다. 직원 보조 프로그램 및 회원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은 근로자에게 약물 남용을 비롯한 자신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안전하고 비밀 보장으로 논의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약물 남용을 겪고 있을 경우 자신의 고용주나 노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는 약물 남용 문제, 오피오이드 또는 다른 이유로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에게서 오피오이드 남용의 징후를 보게 된다면 경영진에게 편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공사는 처벌보다는 도움과 재활에 초점을 두어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고용주의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조성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약물 남용에 대한 오명과 오피오이드 중독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assp.org/news-and-articles/2018/08/28/national-crisis-opioid-abuse-in-the-construction-industry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건설산업에 끼치는 영향

미국 건설경기는 유래 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만 해도 24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하여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설업계의 고용률은 지난 6개월 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6월에는 뉴욕에서만 159,7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률 증가는 건설기술공에 대한 수요에서 발생하였는데, 배관공, 카펫공, 전기공, 창호공 등이 이들입니다. 한편, 건설시장의 증가 또한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건설시장은 2016년 520억 달러(약 58조 원), 2017년에는 453억 달러(약 51조 원)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525억 달러(약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의 호황과 맞물린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미국 건설시장의 건설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설 인력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관련 노조에 가입한 뒤, apprenticeship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력을 관리합니다. 몇몇 시공사들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인력들을 미리 고용하여 건설기능공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타 주에 인력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경우, 남미에서 이주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기능공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라틴계 노동자는 비노조 건설인력의 49%, 노조 등록 건설인력의 31%에 육박합니다. 비 노조 건설분야의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나 경력 및 자격사항이 없어 인력시장 진입이 용이하지만, 여러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시장에서의 이민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민자 출신 건설노동자들은 미국인 건설노동자들을 빠르게 대체해나갔습니다. 전체 건설인력시장의 20%는 이민자 출신이며, 이 비율은 대도시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드라이월(건식벽체)공, 천장 타일 설치공, 페인트공, 카펫 설치공, 지붕공 인력시장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이러한 건설인력시장의 판도를 뒤엎고 불법이민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부당대우를 덮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반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에 의해 노동허가권이 갱신된 70만면의 사람 중 10%에 이르는 7만 명의 이민자들이 건설산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와 노동 허가권 갱신을 폐지하면서,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민자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임시보호조치(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중인 3만 명의 노동자를 더하면, 총 10만 명의 불법이민 건설노동자가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규모 추방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불법이민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위협을 당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동단체들은 노동임금에 의지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불법이민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납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들의 노동 허가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불확실함에 따라, 몇몇 시공사들은 이미 임시보호조치 신분에 있는 노동자들의 2019년 노동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테네시 주, Nashville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드라이월(건식벽체) 노동자 Tenn은 이 주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한달 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Tenn의 고용주는 당장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민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 ICE)에 연락하여 추방당하게 만들겠다고 Tenn을 협박했습니다. Tenn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법이민자들을 각종 착취와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기에 미국의 노동법은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불법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에 의하면, 임금체불은 불법이민자를 향한 부당대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소송에서 불법이민자들은 승소는커녕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조차 매우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법정에 참석하면 그들은 언제든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체납하는 고용주들은 주로 영세한 하청업체들입니다. 체납된 임금의 청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청업체를 고용한 원청업체에게 호소해 봐야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민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허술한 노동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임금지불을 강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법이민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체납에 대해서 주 노동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 건설노동자는 트럼프 당선 이후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전 고용주의 부당대우가 훨씬 더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건설업체 고용주가 노동법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는 옳고, 불법이민자들은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건설 산업계 리더들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건설노동자와 건설인력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하여 이제야 해결책을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몇몇 주에서는 불법이민자 신분의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여당과 민주당인 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동안, 수십만 명의 불법노동자들은 논의에서 제외되어 여러 위협 속에서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산업의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하면 그들의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들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뉴욕에 위치한 건설 컨설팅 회사 Rider Levett Bucknall의 매니저인 Michael Moynihan은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은 노동인력들이 입문하기에 매력적인 산업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인력들이 건설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산업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https://commercialobserver.com/2018/07/on-thin-ice-how-trumps-immigration-stance-is-impacting-the-construction-industry/

기사제공_재미한인건설관리학회
편집 & 디자인_김수덕(Suduck Kim)